



월간 아가페 제394호 · 2016년 12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아가페



크리스마스의 기적
2016 · 12 · agape

성탄을 맞으며 크리스마스 칸타나 사랑의 왕(King of Love) 감사합니다, 찰떡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내 어릴 적 크리스마스 다름을 지나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앙코르 !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정식 연주가 끝났는데도 다시 더 연주해 달라는 청중들의 요청을 앙코르라고 부릅니다. 많은 연주회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앙코르를 외치는 감동적인 연주회를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무대 위의 연주라고 생각한다면 올 한해의 연주도 마감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의 연주는 어떠셨습니까?

나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앙코르를 외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무대의 가장 중요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천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반복된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직 누구에게도 올해의 막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멋진 연주를 해오셨다면 아름다운 마무리로,

아쉬운 연주였다면 막판 뒤집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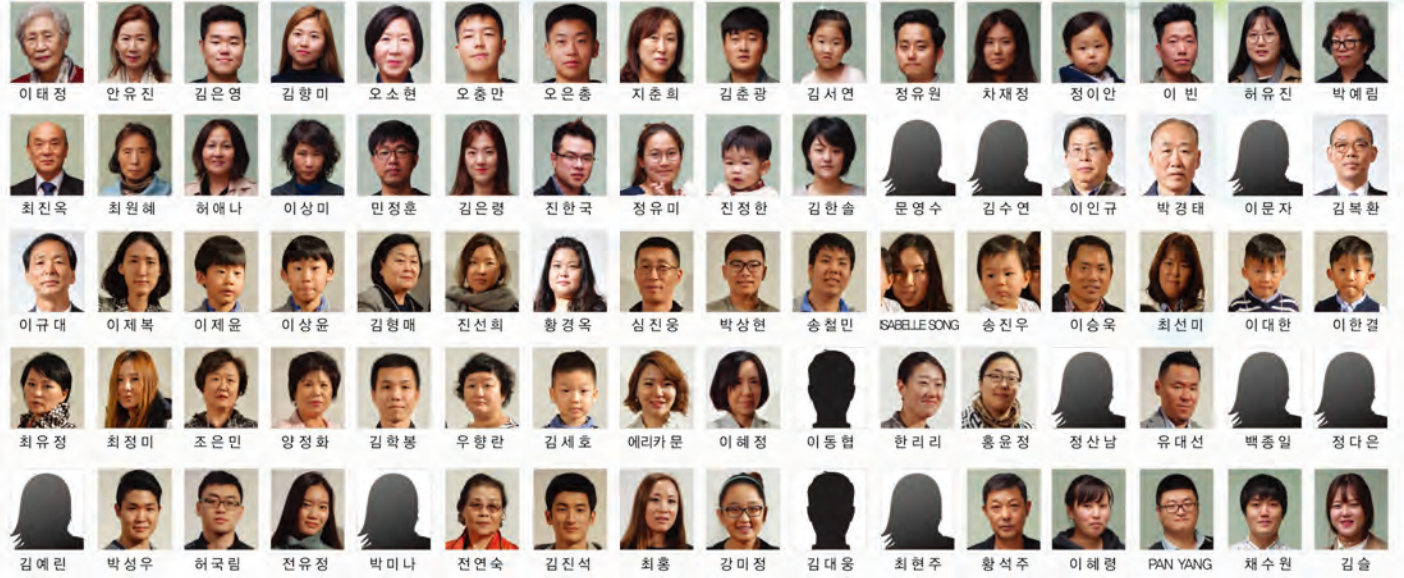
모두 앙코르의 인생이 되어지길.

encore

W·E·L·C·O·M·E

2016년 10월 새가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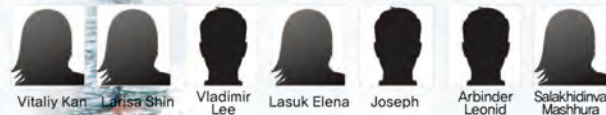
Korean Ministry



Chinese Ministry



Russian Ministry



너희안에
이마음품과
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 새가족 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ncore

An encore is a repeated or additional performance at the end of the concert, which an audience can call for. Many people, including myself, have the rare pleasure of participating in a concert so incredible, that we felt roused to cry out for an encore, a plea for more.

If we were to think of our lives as a concert upon a stage, the time is coming when our performance for this year is drawing to a close.

Friends, how was your performance?

As this year draws to a close, do you feel that you will receive a standing ovation? Will people cry out for an encore?

Out of every audience we could possibly play for, our most important audience, is Lord.

How would God evaluate your year?

How glad, we would be if we were to hear from the divine God, the message so often repeated in Genesis 1,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Friends, the concert has not yet ended.

You see, the most important part of any performance, is it’s ending.

If your concert has been one of beauty and faithfulness, be sure to finish faithfully.

If your performance has been one of struggling and mistakes, turn things around, and change your ending.

Friends may we live our lives in a way which would be worthy of an encore.

Бис!

Когда закончилось выступление артистов, просьба повторить еще раз выражается словом “Бис!”

И хотя я не был на многих концертах, но когда концер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 великолепным, то очень часто все зрители встают и громко кричат: “Бис!”

Если мы представим себе, что наша жизнь это концертная сцена, то настало время завершения концерта. Каким был концерт этого года? Как вы думаете, люди которые видели вас в этой жизни, скажут ли: “Бис!”

На самом деле самый главный зритель нашей жизни это Бог. Как Бог, смотрел на ваш концерт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было бы хорошо услышать слов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вторяющихся в Бытие 1 главе: “И увидел Бог, что это хорошо”.

Еще не настал конец этого года. Важно как мы его завершим. Если концерт был хорошим, сделаем еще лучше финал. А если концерт был не очень, то феерическим финалом, сделаем весь концерт успешным. Желаю всем вам прожить на “Бис!”

再来一个

当正式演奏全部结束后听众们再次要求再来一曲时叫 encore.

虽然我没有参加过很多次演奏会，但是偶尔会碰到包括我在内的听众们的要求再来一首的非常让人感动的演奏会。

如果把我们的生活比喻成一场演奏会的话，今年大家的演奏会是怎样呢？关注过我的生命的人们会不会站起来喊再来一首呢？

说实话我们人生舞台的最重要的听众是上帝，神是怎样看待我们的这一年当中的所作所为呢？

如果我们能反复听到创世记第一章中的这段话该有多好呢！

“神看着一切都甚好”

对我们任何一个人，今年的帷幕还没有落下。结束很重要。

如果今年一年当中你的演奏会一直都很棒，那就为着一个美好的结尾，如果没有那么理想，那就为着一个最后的翻盘，让我们都拥有一个“再来一个”的生命。



월간 아가페 제394호 목차

- 2 신앙시론 · 앙코르! | 김성국 목사
- 5 신앙시 · 감사의 문을 열자 | 이명옥 전도사
- 6 11월 담임목사 설교요약
- 8 신앙과 나 · 전도폭발;은혜;복의 통로 | 조나영 권사
- 9 · 선교를 꿈꾸며 | 편춘자 권사
- 10 ·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 최효진 권사
- 11 · 시련의 끝은 축복입니다 | 송정향 집사
- 12 College Visitations | Pastor Kiwi Jin
- 14 학부모교육세미나 · 꿈이 열리는 리쉬마교육
- 15 학부모간증 ·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 나인애 권사
- 16 성례예배 · 주님의 고귀한 언약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 17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정경훈 교우
- 18 추수감사예배 · 감사합니다 찰 먹겠습니다 | 문승재 집사
 - Our Greatful God | Jenny Hwang
- 19 · 다름을 지나 함께 드리는 감사예배 | 이정혜 권사
- 20 화보 ·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 22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 King of Love | 이광윤 집사
- 24 추억의 성탄 · 내 어릴 적 크리스마스 | 황주현 장로
- 25 the Gospel turns worldly values upside down | Symong Choi
- 26 신학교찬양예배 ·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허창길
- 27 ·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 김미련
- 28 교육부 ·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해요 | 고유진
- 29 · 유아세례를 앞둔 나의 아기 수찬에게 띄우는 편지 | 박세은
- 30 · 새벽기도의 힘과 감사절에 주신 주님의 응답 | 김려화
 - 감사절의 감사 | 김영화
- 31 부서소개 · 차량부 | 김만 집사, 오인택 집사
- 32 중국어예배부 · 은혜의 증거 | 徐妍露
- 35 · 최대의 축복 | 李艳华
- 36 러시아어예배부 · ‘흐리스도스 나로디브샤’ ‘슬라비모 예고’ | 송요한 목사
- 38 반갑습니다 · 동남아 전체를 하나님께... | 박수영 선교사



표지 그래픽 디자인
아콜라연합감리교회 서윤호 집사

감사의 문을 열자

이명옥 전도사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문을 굳게 닫아 둔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평안하라 하시며 두려움과 근심의 자리에
평안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주저앉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감사의 문은 평안의 문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그 곁에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손이
함께하니 그 걸음이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감사의 문은 기쁨의 문입니다

낙헌제로 나아가 기쁨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주 안에는 기쁨 뿐인걸
주 안에는 영광 뿐인걸
밖에서 헤매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몸만 앉아있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으나
감사의 제물 안고 주께로 나가니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감사의 문은 영광의 문입니다.

하늘의 빛난 보좌에 앉으신 주님
그 손에 못자국이 아직도 선명한테
못자국 내 보이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곳을 바라보며 광야의 거친 바람도
깊은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
거할 처소를 마련해 두시고 기다리시니
감사의 문은 천국의 문입니다

11월 6일 / 다니엘 10:1-21

두 · 평 · 강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7장의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8장의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단 10:5-6) 19절의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어려운 현실의 세상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

1.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을 홀로 있음을 두려워했다(10:7-8).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단 10:11a)라고 말씀해 주셨다. 홀로 있을 때 오히려 주님과 깊이 대면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사 43:1-5).

2. 평안하라

바사 군주 헬라 군주가 계속 일어나 싸움이 있을 것(단 10:20-21)이나 진정한 평안과 승리는 예수님 뿐이다(요 16:33)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어떤 환란도 담대히 이기는 힘을 가진 예수님보다 더 힘센 세력은 없다. 어려운일을 당할 때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불안만 더 가득해 진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만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았으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세상사는 동안 어려움이 많지만 담대하라. 우리 주님보다 더 힘센 세력은 없다.

3. 강건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길 기뻐하신다. *잠을 잘 자야 한다(단 10:9). 깊은 잠을 자는 것이 필요하다. 육적으로도 유익하지만 영적으로도 바른 태도이다.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하려는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적 요소인 것이다(시 127:1-2). *그 마음의 근심을 밖으로 드러냈다(단10:16b).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드러내야 영,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기도, 대화, 용서를 통해 드러내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단 10:10, :18).

11월 13일 / 다니엘 11:1-19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진리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 진리의 주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1.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거나 그것이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다.

*힘은 진리가 아니다(단 11:2-5) 많은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한다. 힘은 영원하지 않다. 다니엘 8장에서도 예언된 것으로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의 싸움으로 헬라 왕국의 알렉산더가 바사를 이기고 강성하게 되나 그가 죽고 그의 나라가 넷으로 나뉘진다. 어느 힘도 영원하지 않다. 먹고 먹히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힘은 진리가 될 수 없다. *단합이 진리가 아니다(단 11:6). 남방과 북방이 서로 단합도 하고 화친하나 그 것도 깨어진다. 사람들은 단합된 여론이 진리인 줄 아나 여론도 매번 바뀐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곧 진리는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진리가 아니다(단 11:14).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 있다. 긍정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다. 긍정의 신앙, 변영의 신앙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견고한 성읍, 전통이나 문화가 진리가 아니다(단 11:15). 전통이나 문화는 귀한 것이지만 진리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단 11:16-17). 자기 경험을 진리로 여기지 말라 “동성애는 괜찮다. 인정해야 한다.” 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부추긴다. 나에게 유용한 것, 편리한 것, 경험이 진리가 아니다.

2.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히 13:8)진리이다(요 14:6).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시 24:1) 정치, 사회, 문화, 예술, 학문, 가정 등 모든 영역에 진리를 보이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11월 20일 / 히브리서 3:12-14

참여한 자

오늘 본문 14절에는 “참여한 자” 라는 단어는 머무는 자, 거하는 자, 붙어있는 자라는 뜻이다. 우리는 어디에 참여해야 하는가?

1. 믿음의 모임에 참여하자 (히 3:13).

매일매일 감사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라.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을 만나 우리 사랑의 불, 기쁨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밝혀야 한다.

2.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자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초청하는 식탁의 메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뿐(고전 10:16)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통해 두 가지 축복이 있다(마 26:26-28).

1) 속죄의 축복이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므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후 5:21). 그리하여 나의 죄는 씻김 받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의인이 되었다.

2) 언약의 축복이다. 세상의 약속과 달리 예수님이 그 피로 맺어주신 언약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다. 언약의 내용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시 54:10).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어울리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 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속죄와 언약 사이에서 견고한 성도가 되길 축원한다.

11월 27일 / 역대하 20:20-3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고치신 열 명의 나환자 가운데 한 명만이 돌아와 감사함을 보시며 감사를 잊고 사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감사를 잊지 않는 자를 칭찬하시고 더 큰 복을 주셨다(눅 17:15-19).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감사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이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씀을 듣게 된다. 어려울 때에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함께 있었다(대하 20:20-22). (히 11:6)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와 감사 드리는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행동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주시는 상을 살펴보자

1. 승리의 복(대하 20:21-24)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승리한다. 역경에도 감사하라. 승리의 기적이 찾아온다.

2. 물질의 복(대하 20:25)

재물, 의복, 보물 등 놀라운 것들을 가져갈 수도 없이 많이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감사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감사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다(고후 9:6).

3. 기쁨의 복(대하 20:26-28)

기쁨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쁨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역경 중에 먼저 감사했다. 기쁨이 넘쳤다(빌 1:3-4). 그 사람의 얼굴을 감사의 성적표이다.

4. 평강의 복(대하 20:29-30)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평강이 임한다(빌 4:6-7). 하나님은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 물질, 기쁨, 평강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도폭발; 은혜; 복의 통로

다섯 살의 예쁜 여자 아이가 뒤쪽의 감춰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 줄게 교회 같이 갈래?”
그것은 부러진 빨강 크레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반쪽짜리 크레용을 받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척교회를 세우는 찬양 사역을 한 단체의 한 사람으로 섬겼던 화려한 신앙 이력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없는 열심으로 습관적인 신앙생활뿐이었던 나를 주님은 전도폭발 제 4기 훈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큰 깨달음을 주시며 지난날의 두서없는 나의 신앙생활을 마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은혜로 영생을 얻고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닌 온전히 주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도전과 담대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증명해 내는 것임을 알고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전도폭발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발판이 되게 하였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고 무릎 꿇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도현장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기다림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심을 경험하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하였고 부족한 입술

이라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무엇보다 저를 기뻐하심을 알게 하였고 마음 한 가운데에 계신 주님을 든든히 믿고 은혜로 굳게 세워 택하신 곳에서 어느 부름에라도 한 걸음 더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생활이 단순해지고 심지어 남편은 나를 ‘홀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오직 예수 밖에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같은 남편도 도전과 절제를 주는 말로 격려해 줍니다.

나의 부족함을 더욱 더 많이 알게 하시며 겸손으로 후배들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을 기대하는 작은 소자의 마음으로 하늘의 울림 있기를 소망함이 나의 간증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용되며 그 분이 역사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늘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변치 않는 기쁨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요동치 않으며 믿음의 지경을 넓혀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나영 권사



편춘자 권사

선교를 꿈꾸며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자녀로 큰 사랑을 받은 나에게 삼년 전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강하게 주셔서 더 나이 들기 전에 할 수 있기를 소원했었다. 그 후 2번의 교통사고를 같은 해에 당하면서 몸이 많이 불편하고 잘 걸을 수도 없게 되어 꿈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담임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지며 2016년도는 뉴멕시코 단기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12명의 선교팀원들은 3개월 전부터 성경말씀 묵상, 고리금식, 찬양과 율동 연습, 현지의 인사말 등을 배우며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등을 논의하며 훈련에 들어갔다.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헌신 봉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선교였다.

7월 9일 밤 11시에 도착한 현지는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캄캄한 뉴멕시코 북부지역 칠천 미터 고지대로 살아있는 나무, 풀 한포기, 물도 없는 광야 같은 사막이었다. 1시간에서 3시간을 가야 1-2집, 많게는 5-6집이 모여 있는 지역을 바람이 불면 모래흙을 뒤집어쓰며 찾아가 복음제시를 하였다.

인디언 원주민인 그들의 마음 바탕에는 자신의 영토를 빼앗긴 분노가 가득하여 웃음기 없는 얼굴에 즐거움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인디언 부족을 섬기며 독수리신을 섬기는 강

박한 마음에는 예수님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력한 복음을 제시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자유를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얻은 우리의 천국소망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하니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헐고 화기에애한 미소를 지으며 얼굴색이 환해지며 복음을 영접하였다. 부족한 나의 간증시간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다. 간증을 마치고 나니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칭송하며 악수하고 안아 주었다. 양로원을 방문하여 일대일 복음 제시를 할 때는 그들이 너무 좋아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언제 또 오냐” 며 헤어짐을 아쉬워하였다.

이번 단기선교 참여로 인하여 선교는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임을 크게 깨달았다. 아직 완쾌되지 못한 몸으로 다리가 붓고 아팠지만 묵묵히 다른 대원보다 기도의 자리에 30분 먼저 나가 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단기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번을 시작으로 주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한, 매년 참여하고자 한다. 숫자에 불과한 나이에 연연하지 말고 매년 더욱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늘 중보기도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한다.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최효진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16여년을 같은 직장에서 감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서 출근할 때면 직장동료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걸어서 출근하다보니 출근길에 만나는 동네분들과의 친분도 깊은 편이라서 안부를 나누며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내리고, 퇴근 시간쯤에는 싱크에 담겨져 있는 모든 그릇과 커피 찻잔을 깨끗하게 씻고 함께 사용하는 부엌도 정리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저의 주요 업무가 학생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것이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있으면 바로 바로 공부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 언제나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직장 안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현재 같은 부서에서 다섯 분의 백인 동료와 두 분의 중국 동료들을 관리하며 이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분들이라서 제가 크리스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 사무실로 와서 도움을 청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사순절이나 수련회를 갈 때면 동료들의 기도제목을 받아갑니다. 간혹 신앙 상담을 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는 못하게 되어있지만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학교 내 총기 사건도 자주 일어나서, 학기마다 총기 대피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훈련 내용은 도망가든지, 숨든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훈련을 받을 때마다 듭니다. 실제로 한 학생에게 10년 전 제가 직접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고, 결국 그 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장 발작 등이 일어나 응급차가 달려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이 있

을 때는 더 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안타까웠던 일은 한 한국 유학생이 힘든 법대 공부를 마치고,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암으로 죽은 소식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도서관 앞에서 담배를 연신 피우던 그 여학생의 얼굴이 떠오르며, 몇 번 대화를 나누기는 했으나, 그 학생이 안고 있었던 건강의 문제나, 장래의 걱정이나, 특히 구원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의 영혼이 어디에 있을지, 기회는 있었으나, 그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맘이 힘들게 했습니다.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만나는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미국을 배우고, 제 삶도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 암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동료가 암에 걸려 호스피스 센터로 옮기기까지 동료들이 돌아가면서 그 분의 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배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혀를 2/3 이상 잘라내야 했던 동료가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도와 이메일과 카드로 응원을 했습니다. 직장이라는 것 외에는 연결 고리가 없지만 직장을 떠스한 곳으로 품고 만들어가는 동료들의 모습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생각하며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장이고, 섬김의 장이고, 배움의 장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은 분도 있지만 때때로 힘든 분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몇 번 단체 상담도 하고, 리트릿도 하며 힘들게 하는 어떤 동료에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분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상사로부터 그 분을 담당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몇 년간 교육도 하였지만, 새로운 것은 무조건 거부하고, 또 번번이 다른 동료들과도 큰 문제들이 일어나서 결국 여러 동료들이 그분의 해고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힘든 상황도 여러 번 있었지만, 저까지 등을 돌리면 큰 후회를 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부담감을 갖고 결국 제가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동료 간의 문제는 계속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나 마찬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할 때 주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동료가 잘하는 일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중재를 담당하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 평가회 때마다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힘든 동료로 인해서 제가 자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료 간에 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제 생명을 구해준 상사를, 몇 년



을 한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로 풍성한 결실의 가을을 풍요롭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고 광야의 만나를 공급하시며 부족한 저를 붙잡아 회복해 주시며 부족한 엄마의 두 아이들을 주님의 날개 밑에서 보호하여 장성하게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여 년 전 28살의 저에게 2살과 6개월 된 두 아이를 남겨 놓고 아이들의 아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온지 3년 밖에 안 된 어린 저는 신분도 갖춰지지 않은 어려운 이민 생활의 가혹한 현실에 심한 우울증도 겪으면서 기도조차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주위의 모든 것이 싫어지며 끝도 보이지 않는 죽음과 같은 터널을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나며 절망의 끝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랑과 기도로 어느 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갈증으로 믿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지한 제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었드리니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

후 그분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구원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할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생계의 수단으로 주신 직장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 정복해야 할 땅, 이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련의 끝은 축복입니다

송정향 집사

님은 저의 삶에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 하셨고 그 사랑의 줄을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54:4-10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고,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과 고아들에 대한 비전도 갖게 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자를 택하여 주님은 수많은 날을 참아주시며 인내로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주님의 은혜와 예정 가운데 약대 인턴으로 내년 5월에 졸업할 예정이고 둘째 아들은 U.S Navy에서 메디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Amazing, Pride, Best Mom 등 각종 찬사로 인정해 주는 잘 커준 두 아들들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진정한 집인 불이 꺼지지 않는 뜨거운 교회, 하나님 뜻에 합한 좋은 목자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도폭발훈련, 제자훈련, 영성훈련과 단기선교를 통해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편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드리시길 원합니다. 내 생애 가장 최고의 감사는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이며, 이 가을의 풍성함같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풍성한 삶이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광이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시련과 인내의 그 끝은 축복임을 알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College Visitations

Pastor Kiwi Jin

This past month, Pastor David Bae and I had had the amazing opportunity to visit college students who attend our church but are unable to during the semester due to the distance. We were able to visit a total of seven schools over a span for four days meeting with over 15 students. Because the trip overall was only four days long and we had many schools to visit, Pastor David and I decided we would need to meet with students for no longer than an hour and a half to ensure enough time for all the students. However, as we began to meet with students, students were so open and receptive to meeting with us and conversations ended up easily going over two hours; sometimes even longer than that. Through these times, we were not only able to buy the students some food, but we were able to encourage them in their walks of faith, listen to their struggles in college, and pray with them through what they were going through. Not only were these meetings a visitation, but we believe that genuine ministry happened as we shared life, shared food, shared laughter and struggles together.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college students as they wrestle with their faith through school. Below are short testimonies that students shared about our time altogether:

Faith in college was one of the big worries I had as I was imagining my next step in life to become more independent. In the midst of drastic changes of going to college, I was looking for any means to keep my faith in check. Going to an on-campus church, I was exposed to new perspective toward reading the Bible and understanding it. I found myself always discovering the big and small ways that God was working in my life and in the lives of the people I met here. That's when Pastor Kiwi and Pastor David contacted me that they were going to visit. I expected the dinner with them to be a little awkward but I found myself actually pretty comfortable, talking about my views and asking for advices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It was so encouraging to see how God provides such caring mentors who I can look up to or simply approach to share my current religious stance and ask questions as I strive to further get to know God and how to live the way He calls me to live. Their visit left me with full of encouragements and appreciation! Thank you!

-Suin Jung



I am so thankful that Pastor David and Pastor Kiwi visited me at Cornell for a few days this past month. College has been so full of new experiences, friends, and activities that it was almost overwhelming at times. As the semester progressed, studying for classes became very stressful and time consuming for me, so for Pastor David and Pastor Kiwi to come all the way up to Ithaca to come visit me during a time of stress and difficulty was something that I feel so grateful for. Over dinner we had the chance to catch up after not seeing each other for several months, which was nice because I was able to confide in them about all the difficulties and new experiences I was having, as well as ask for advice concerning how to make the most of my time in college. After dinner, Pastor David and Pastor Kiwi were gracious enough to take me to the grocery store and buy me and my suitemates groceries for the week. Following our trip to the grocery store, we went to have a time of fellowship with people from Bethany, a church on campus here at Cornell. Although I regularly attend service at Bethany, I usually do not attend the fellowship on Fridays, so I am grateful to Pastor David and Pastor Kiwi for bringing me to have a time of fellowship, as I was able to become closer with some of the people in the church. Overall, I am so glad that I got to spend time with both Pastor David and Pastor Kiwi, and thankful to KAPCQ for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hem to tour colleges and keep in touch with the graduates of Senior High.

-SJ Yoon



꿈이 열리는 리쉬마교육

새로운 P T A 임원이 조직되고 첫 번 행사로 11월 13일 주 일 저녁에 허정문목사님을 모시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시편 1:1-2)”의 말씀을 바탕으로 ‘꿈이 열리는 리쉬마교육’이란 제목으로, 역사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양성 시킨 유대인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많은 지식을 한정된 시간에 쏟아 부어주신 허목사님의 세미나를 요약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에 각각 750만 정도의 유대인들 60-70%가 전통 유대인으로서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 불구자이나 여전히 토라(리쉬마)를 갖고 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토라(율법, 가르침)이다. 국소적 의미로 모세오경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 성경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약에서 예수그리스도는 율법을 해설하고 몸소 이행하며 주심으로 토라 자체가 되신 것이다.

마 5:10에서 율법이 폐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자체는 기록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일점일획도 떨어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잘못된 것으로 다만 율법을 대하는 태도인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자는 율법을 깊은 뜻을 찾아가며 발견해 율법을 즐거워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출 12장의 유월절 의미에서 예수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하고 제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나의 위치를 깊이 깨달아야 함과 같다.

유대인 교육의 위대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토라의 지식으로 세상적 모든 지식을 감싸고 분별할 수 있게 탁월한 교육적 사고 방식을 예시바(Yeshiba)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해 나간다. 이는 교사(랍비)가 가정의 부모와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24시간 함께 하는 교육의 장으로, 토라를 통한 교육적 유산을 학문적 Topic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예배와 Study를 함께 하는 것이다.

교회적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1. 지혜교육 2. 말씀에 대한 교육 3. 정체성 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자신을 찾아 자신의 할 일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는 말씀을 찾는 자로 율법의 그 뜻과 의미를 깨달은 자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열등감이나 우울성 없이 요동치 않게 세울 수 있는 가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한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나인에 권사

좋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육에 열정을 갖고 훌륭한 주일학교를 세우신 장영춘 원로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자녀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국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 선생님과 각 교사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12일 토요일 아침에 교육부와 주일학교 영아부에서부터 대학부까지의 부장 선생님들과 P T A 회장단이 함께 모여 담임목사님과 한 시간 정도의 미팅을 통해 각자의 소개와 우리 아이들의 자랑거리 그리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P T A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고 P T A의 vision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회심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선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기

둘째로 자녀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을 가지는 것.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가 Role Model 이 되어야 하는 것

셋째로 자녀 각자의 달란트를 개발해 주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키우는 것

네째로 바른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등부 P T A 회장으로서 우리 교회의 교육방침을 따라 목사님과 부모님들의 통로 역할과 또한 기도도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특별히 매주 3째 주 금요일 저녁에 배형민 목사님의 기도 인도로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지금껏 우리아이들을 주일날 교회만 데리고 오고 영적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9



주님의 고귀한 언약을 몸과 마음에 새기며...

울긋불긋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과 무르익은 오곡 백과로 풍성한 11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세어보는 감사의 달입니다. 그 첫 행사로 11월 20일 주일을 성례주일로 지켰는데 이 날 1,2,3,4부 예배 때에는 모든 세례, 입교 교인들이 주님의 식탁(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주신 속죄와 언약의 축복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예배를 성례 예배로 드렸습니다.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홍승룡장로님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나 같은 죄인 살리신)후에 목사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으시' (행8:12-13)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음은 듣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1.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세례의 형태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물을 뿌리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며, 세례는 씻김 받은 표시를 공포하는 것이고 한번 받은 세례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2.세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모든 성도가 같은 세례를 받으므로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세례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외면 뿐 아니라 내면까지 변하는 진정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오늘 세례식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식의 순서로 진행 되었으며, 중국어 회중이 유난히 많았던 학습자가 27명, 유아 세례자가 13명, 입교자가 11명, 세례자가 11명이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난 후에 세례, 입교자들이 감격스러운 첫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한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성례 예배를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세례 받고 입교한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향한 그들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 주님 나라에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경훈 교우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지낸지 1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와 집 사람이 이끄는 대로 함께 할 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세례문답식이 있던 날 회사에서 1시간 일찍 퇴근하면서 회사 직원들에게 "시험 보러 갑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시험 잘 보라는 직원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운전 을 하면서 일찍 교회 가서 책도 더 보고 자신 있게 준비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7시까지 교회에 가야하는 줄 알았던 저는 여유 있게 6시에 출발해서 6시 40분쯤이면 도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미드타운터널을 빠져나온 시간이 7시를 넘겼습니다. 속으로 큰 일이네 하면서 급한 마음에 집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에 늦겠다고 연락을 부탁하였습니다. 집사람이 7시 20분까지 도착하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만,, 이미 7시를 넘긴 시간이고 터널 밖의 도로상황도 쉽지 않았습니.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어느 길로 가야 좋을까? 잠시 생각하다가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 늦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도를 하고 차가 막히지만 셋 길을 찾지 않고 늘 다니던 길을 운전을 해서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놀라게도 7시 20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저를 인도해주시는 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렸습니다.

이러한 시간도 잠시, 세례문답식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앉으니 목사님께서 세례 받을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셨고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질문은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열심히 교재를 공부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 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엉뚱한 대답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답변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출장 중에도 책도 보고, 짬나는 데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준비하였지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고, 이게 아닌데 하며 세례문답식이 끝나버렸습니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혼자서도 얼굴이 붉어집니다.

문답식 후 집에 오는 길에 운전을 하며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암기식 공부에 자신이 있던 저는 세례문답식을 준비하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암기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임을 이제 깨닫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눈을 감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다닌 시간이 반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여전히 무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눈을 감고 앉아 있던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이 좋습니다.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하지만 기도 후에는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하루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며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세례 받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믿음을 갖고 교회에 적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목사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찰떡겠습니다”

문승재 집사

매해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퀸즈장로교회는 밝은 쌀쌀 하지만 모든 사람의 섬김과 감사로 따뜻함을 보냅니다.

이른 오후 여선교회 회원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이 하나 둘씩 아름답고 따뜻하게 꾸며진 지하 친교실로 모입니다. 남선교회는 음식 픽업으로 여선교회 회원들은 음식을 만들고 데코하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하 호호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우들을 생각하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만찬 시간이 점점 다 되어가고 각 선교회의 더 많은 회원들이 서빙을 위해 모입니다.

일찍 오지 못해 미안하다고, 일하고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서로의 격려함과 함께 서빙을 준비합니다. 만찬을 함께하려는 KM, CM, EM, RLM 교우들이 하나 둘씩

지하 친교실과 체육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모인 교우들로 교회는 더욱더 따뜻해 질 때쯤 목사님의 감사기도로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Happy Thanksgiving”, “잘 먹겠습니다.” 서로의 오고가는 인사로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CM,RLM 식구들은 안 되는 한국어 발음을 애써하며 서빙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 “찰떡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Thanksgiving 만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즐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추운겨울 날에 손에 들려진 고구마처럼 따뜻한 퀸장의 Thanksgiving 만찬이 참 좋습니다.

Our Grateful God

Jenny Hwang

Thanksgiving beckons people from all over to come together and celebrate and offer up praise and gratitude to God our Father for all of His innumerable blessings. This Thanksgiving, rather than focusing on the proverbial stories,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father of Thanksgiving, our grateful God.

Our story begins in Luke 15. In verses 11-24, Jesus tells the parable of a father who had two sons whom he loved immensely. However, the younger of the two demands his share of inheritance from his father. In the historical context, by making such a request for a premature share of his inheritance, this younger son is actually asking for the death of his father. Rather than refusing this demand, the father complies and the younger son is soon off. We all know the sad ending to this story. After much time and much calamity, this prodigal son returns with his tail between his legs and abdicates all of his rights as a son. He

returns with intentions of begging his father to accept him back as a servant and not as a son. However, may I remind you of the unexpected reaction of this father of ancient times? An offended father such as this would have been perfectly just to reject the younger son, yet this father is different. Very different. Rather than behaving as expected for one in his defaced position, we read in Luke 15:20 that when the son was still a far way off, this father who all the while was waiting and seeking his son's return and sees him first, seems not to care what his family, his servants or others thought, and instead, in an undignified and embarrassing manner, first runs to his long-lost son. The father then embraces him and kisses him. And if that demonstration of unconditional love was not enough, the father as if he suffered from amnesia, continues this attestation of generosity by giving this son, who squandered all of his inheritance, the best robe, ring and shoes. Finally, to the sheer disbelief of witnesses and readers alike, he requests the fattened calf to be killed, eaten then holds a celebration.

다름을 지나 함께 드리는 감사 예배

이정혜 권사

올 해 추수감사 예배는 짧은 동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온 교회를 한껏 분주하고 들뜨게 했던 풍성한 만찬이 끝나고 본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에게 잠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어찌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를 그 짧은 영상에 모두 담아 낼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집에서 친지들과 보내는 이 시간을 함께 하기로 정하고 맡은 자리에서 서로 도와 함께 식사를 마친 공동체가 함께 돌아보는 한 해의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씀 시간은 그야말로 다민족 다세대가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설교대신 교역자들이 출연한 “하나님께 감사!” 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펼쳐졌다. 까다로운 왕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요리사가 재치를 발휘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역자들은 대사가 4 개 국어로 통역되는 동안 몸 연기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쳐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까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회중 모두에게 웃음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어진 교육부 발표시간에는 지난해에 비해 부쩍 자라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더해 여러 나라의 말로 찬양을 하고, 여러 나라의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매 해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어떤 이에게는 오랜만에 가족 친지와 함께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상 차려 내야하는 부담스러운 명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다음날 있을 Black Friday sale이 더 기다려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세대와 언어, 문화의 다름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한 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공동체가 함께 감사해야 할 것들을 꼽아보고,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해마다 다른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한때 뿐 아니라 늘, 온 맘과 정성을 다하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불변의 메시지가 울리는 푸근한 늦가을 밤이었다.

How does this story make any sense unless we see deeply who this father is? This father, who epitomizes our God, is a father who is grateful and thankful that his dead son is alive and who was lost and is now found. The father shows his thanks by giving, and giving it all. He lavished it all, just like our Father. In this famous parable, the two sons get all the attention, but this Thanksgiving, we give thanks to God our grateful father from whom all goodness and blessings flow and who demonstrates for us, His children, first, how to be thankful. Thank You, Father, for your love through word and deed and giving it all. As we decorated the lobby this Thanksgiving, we remembered that we are a family whom God loves regardless of culture, race, background, age and just like the prodigal son, we are grateful to God for His unconditional love and always welcoming us back home.



추수감사절 감사의 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On which the Prince of Glory died
 当我思量奇妙十架，荣耀之主在上悬挂
 Когда я поднимаю взор
 На Крест, где Божий Сын страдал

감사를 드리자



사랑의 왕 King of Love



이광윤 집사



서창 '목자들의 축제' 로 찬양예배의 문을 연 타민족찬양대



G2G 화랑예찬으로 구성된 어린이합창단



관현악단에 함께한 유스오케스트라



'사랑의 왕' 말씀을 전하신 김성규 담임목사님



준비기간 내내 사랑과 섬김이 넘쳤던 연합찬양대의 '사랑의 왕' / 지휘 - 윤원상 전도사



총인원 248명의 기쁘고 행복한 외침 'MERRY CHRISTMAS'

금년 크리스마스에 총인원 200여명이 찬양한 곡은 Rodger Strader의 '사랑의 왕' 입니다. 제목 그대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함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경배 찬양하는 곡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곡의 가사와 흐름에 그대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찬양곡입니다.

작곡가 스트레이더는 교회음악의 주옥같은 곡들을 많이 작곡한 작곡가 중의 한 분으로 이 곡은 1978년에 출판된 곡입니다. 오케스트라 서곡으로 시작해서 곡의 전개를 알려주는 내레이터와 예수님의 성육신의 탄생을 예언하는 천사, 설 방울 찾는 요셉, 양 치던 목자들에게 탄생하심을 선포하는 천사,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가장 귀한 삶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경배하자는 성도의 다짐으로 마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 찬양! 우리 모두 주 찬양! 아멘!!!

이번 '사랑의 왕 칸타타' 는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연주하는 곡입니다. 전에 드렸던 헨델의 메시아, 엘리야, 천지창조 같은 대곡에 비하면 이번에는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연습하며 다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에게 전파되는 간절하고도 확실한 귀한 복음의 메시지처럼 이 곡은 남녀노

소 듣는 모두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왕을 쉽게 만나고 감동받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특성은 사랑이라는 가사의 표현보다는 곡 자체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오케스트라와 합창의 연주로 물씬 풍기는 곡들의 연속으로, 너무 아름다워 예쁘기까지 한, 사랑의 하나님의 포근한 품에 안기는 듯한 곡입니다. 오랜 지휘자로서 연륜을 갖춘 교역자의 탁월한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와 보라" 고 나다니엘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12월 11일에 오셔서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사랑의 왕을 만나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몇 주 전 저희 찬양대 연습 도중에 단비TV 직원이 교회를 갑자기 방문하여 사진도 찍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 다른 교회도 촬영을 위해 들러오셨다며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수의 찬양대원이 모여 연습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워하시며 감탄을 멈추지 못하며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는 김에, 매년 크리스마스 3개월 전부터 매주 저녁 식사를 4부 찬양대가 돌아가며 스스로 준비하며 연습을 해 왔다고 알려드리니 이런 교회는 처음 대하신다며 좋은 교회라고 엄지를 척 올리셨습니다.

저희는 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대장 장로님, 각 찬양대의 네 분의 부장님과 총무님들, 지휘자와 반주자, 솔리스트, 그리고 네 분의 합창단 단장님들과 모든 대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 주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라고 하실 퀸즈장로교회의 찬양대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7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자들을 분석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7년을 더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올 해가 가기 전에 찬양대에 가입하십시오. 단, 오디션은 통과 하셔야 합니다.

귀한 찬양대의 일원으로 찬양 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내 어린 적 크리스마스

황주현 장로

내 고향의 어린 적 교회는 대구시에 있는 반야월교회로 지금은 만 여 명이 모이는 설립 117년 된 대형교회가 되었지만 7,80년 전 당시에는 면소재지에 단 하나 뿐인 교회였다. 당시의 대구시는 동네에 기와집도 몇 채 안되었고 거의 초가집으로 엮은 집들이 드문드문 있는 한적한 곳이었다.

교회당 안은 의자도 없이 때 묻은 방석 몇 개가 뒹굴던 마룻바닥으로 어린 기억 속의 크리스마스는 가난하고 정말 추웠다.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몇 분 정도 손뼉을 정도로 양복 입은 사람이 전부이고 대개는 숨을 넣어 누벼 만든 옷으로 흰색이나 검은색의 한복을 입고 여자는 머리에 흰수건을 쓰고 다녔다.

유년주일학교 때의 크리스마스에는 면바지 핫바지와 고무신을 신고 난로 옆에서 형님과 누나가 하던 연극을 보고 나눠주던 과자나 연필을 받아 오던 기억이 난다. 중,고등부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러 저녁이면 교육관에 모여 합창연습을 하고 전날에는 소나무로 만든 성탄 트리 아래에 각자 선물을 놓고 갔다. 당시의 선물은 작은 연필이나 필기도구, 학용품 등으로 면목장갑이나 양말, 과자 등이 뽑히면 최고의 선물로 기뻐했다.

청년 시절의 성탄은 1년을 기다리는 행사로 새벽부터 두꺼운 옷을 입고 5,6,7명이 조가 되어 새벽송을 돌았다. 시골동네 교인집 앞에서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하고 여기저기서 산 메아리로 어둠을 깨우고 다녔다. 산 속의 외딴집에 가면 수고한다고 뜨거운 국밥을 말아주어 호호 불어가며 먹었고 한아름 안겨주는 과일과 과자를 교회에 갖고 와서 나눠 먹던 기억이 난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독일에 광부로 갔을 때 그곳의 목사님 내외분을 통해 받은 사랑이다. 1965년 당시의 독일은 한국 경제 수준과는 너무 다른 풍요롭고 여유 있는 환경이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광부로 아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정을 들은 목사님 내외분은 더욱 살피 주시며 애뜻해하시고 주일 오후에 집으로 초대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음식으로 대접하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게 배려하여 주

셨다. 주일에 빠짐없이 나가는 예배는 비록 설교도 찬양도 따라 부를 수 없어 음울한 울조리는 상황이었지만 그 분들을 통해서 교회 양로원 봉사를 함께 다니며 독일어도 가르쳐 주시며 그곳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1979년 본 교회에 온지 몇 개월 후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준비를 할 때였다. 앞드려 일을 하는데 바지 뒷술기가 뜯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누가 볼세라 빠른 걸음으로 10여분 걸리는 거리를 뒤도 안돌아보고 걸어와서 4층 우리 아파트가 있는 엘리베이터까지는 무사히 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의 현관문을 열쇠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았다. 그 때 갑자기 안에서 성난 중국사람이 나와 나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소리를 질렀다. 급한 마음에 3층의 다른 집을 열려고 한 것이다. 그가 4층 우리 집까지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는데 영어도 못하는 나의 답답함에 창피도 모르고 뒤로 돌아 바지의 뜯어진 술기를 벌려 보여주어 오해를 풀었다. 그 중국인은 후에 친구가 되어 웃고 지냈지만 이민초기의 어려웠던 기억을 되새기며 쓴 웃음이 지어진다.

지금은 성탄에 장성한 두 아들과 며느리들, 딸 내외, 두 손주의 교육부 재롱잔치를 보며 즐긴다. 우리의 어려운 지난날에도 늘 교회 옆에서 생활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자손들에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시간들이 헛된 것만이 아님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다.

6.25전쟁 전 후의 비록 춥고 어두웠던 시절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교회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만큼은 환하고 따뜻하게 기억된다.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the Gospel turns worldly values upside down

Deacon Symong Choi



The last time I wrote an article for Agape was two years ago during the church's 40th and QPEM's 20th anniversary. In that article, I wrote my testimony on how change is a constant in life but God never changes. God is outside the realm of change. Both QPEM and KAPCQ had gone, and was going through, some tough changes. James 1:17 states,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adow due to change." God uses change to reveal His plan for us. A lot has changed since then.

I am either cursed or blessed. This is a funny way to open up a reflective narrativ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topic. Becoming an elder-elect or elder-in-training has been marked with much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I know my family is proud of me, and members of our church have been very encouraging and supportive. In the weeks leading up to the elder election at QPEM, a few members asked me whether I wanted to be an elder, and if I had the time to fulfill the duties of an elder. My only response was "I don't know". I believed that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was not up to me, but was for the members of QPEM to decide - could they trust me to fulfill the responsibilities of being their elder? Therefore, I thank all my brothers and sisters in QPEM for entrusting in me with that responsibility.

In regards to the time commitment - who really has time to spare? At least I live close to church, unlike my fellow QPEM elder-elect, Deacon Tae Whang, who works in New Jersey and lives in Rockland County. ☒ But all kidding aside, not having time is a common and over-used excuse. How many times have we said, "I can't, I just don't have the time for..." I am reminded of a sermon I heard recently during this year's QPEM fall retreat where Pastor Paul Kim challenged us to think of church service as a blessing and a privilege. Serving in ministry is God's gift to us as believers. We are not doing God a favor through our service; instead, He is showing us favor by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grow in faith through serving our church family. How do we ma-

ture as a Christian? We study the Bible, pray, attend church, and also to do the work of ministry. As I reflect upon my spiritual journey so far (which has taken place entirely at KAPCQ/QPEM since I was born at the church), I can honestly say that much of my spiritual maturity was gained through serving in the ministry. Whether welcoming newcomers, driving a van, serving in college ministry, going on summer missions, or leading community, Bible study and discipleship groups - all these experiences have shaped and strengthened my faith and walk with God.

Opportunities to serve are opportunities for us to live out our faith. God has bestowed upon me this new privilege, the privilege to be an elder of His church. Becoming an elder at KAPCQ is a huge moment not only in my life, but also for QPEM as well. I don't believe there are many, if any, English ministries in the East Coast that have their own elder(s). Having been a member of QPEM from the start, it brings me great joy to see God at work in growing QPEM. Despite all the ups and downs the ministry has experienced in the past, God's amazing plan has resulted in QPEM having our own deacons, ordained deacons, and now elders. I know in my heart that God is bringing change to reveal His plan for us.

So then, why am I either blessed or cursed? The world would say that I am cursed because my own personal ambitions and desires can't coexist with God's calling. In 1 Peter 5:2-3, Peter exhorts the church leaders to "shepherd the flock of God that is among you, exercising oversight, not under compulsion, but willingly, as God would have you, not for shameful gain but eagerly; not domineering over those in your charge,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This is no easy task and I ask that you pray for our pastors, elders, deacons and other church leaders as we are all sinners in need of God's grace and mercy. We need to see one another through the lens of God who shows no partiality.

The world may say I am cursed, but I know I am blessed because the Gospel turns worldly values upside down.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허창길



신앙인은 누구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본인만의 간증이 있을 것 입니다. 신앙 간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상서, 나의 소중한 사랑의 일기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라고 생각되어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1982년에 뉴욕으로 이민 왔습니다. 1984년에 대학교 진학으로 뉴욕을 떠나게 되었다가 지난 5월에 직장관계로 다시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32년만 입니다. 단 돈 \$300과 아메리칸 드림으로 시작한 지난 이민의 삶을 되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과 삶의 광야에서 매 순간 섭리 하였고 저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끄셨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는 이민자로 비교적 성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삼성에 스카우트 되어 다시 한국으로 역이민도 가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의 캐나다 지역 총괄 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나름대로 저의 분야에서 현지인들과 어깨를 겨루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다니며 저희 가정은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삶에서 이룬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름앞에 ‘최연소’ 또는 ‘최고’ 라는 수식어가 붙고 부사장, 사장님 이란 호칭이 붙으면서 저의 행동과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보다 나의 영광과 마음의 위안과 가정의 안락을 위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거룩의 모습만 있었던 선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제가 50이 되던 해 하나님은 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나의 전문인 회사 구조 조정으로 직원 해고에 익숙해 있던 제가 바로 그 구조조정의 칼날에 실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년 동안 회사에 충성 하였던 저는 마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직장을 잃고 명예퇴직 할 때도 저는 나의 네트워크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택함’ 을 받은 나에게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 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가족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였던 우월주의가 나의 우상 이었습니다.

저는 뼈뺀 나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직장에서 해고된 후 즉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몇 시간씩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수고와 봉사와 섬김에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 하며 나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합리화 했던 악하고 게으른 지난 삶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했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새 직장을 구하는것 보다 우선 주님께 저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 했습니다.

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왜 고난이 유익인지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그 자체 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였고, 공홀하신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의 시간들을 통하여 130년 전 25세의 젊은 나이에 조선을 품었던 선교사 계일을 알게 하시고 열방의 비전도 주셨습니다. 당시 전쟁 중인 선교지로 떠나면서 유서도 쓰게 하시고 아파로서 자녀들에게 물질의 재산 보다 더 귀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깨달음도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저를 바로 그 현장에 있게 하였고 그 시간 이후 신체가 마비되어 입으로 말씀과 식사를 못 하였던 아버지를 직장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병수발 들게 하셨습니다. 자라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 난생 처음으로 수개월을 함께 지내며 그렇게 엄격 하셨던 아버지의 인간적이고 순수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렇게 찾기 어려웠던 직장을 아버지가 소천 하신지 채 두 달이 안되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묘막측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이 신학을 하겠



다고 이야기 할 때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아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입니다. 우선 남편의 성격과 성품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신학의 길이 어렵고 나이도 있고 당연히 경제적인면도 걱정이 되겠지요. 저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신학을 아내의 동의 없이는 시작할 수 없으니 저는 그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야간 수업이 너무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당신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 보세요 하며 아내의 비전도 공유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학장 장영춘 목사님을 통하여 29년 전에 이곳 뉴욕 땅에 동부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배출 하였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당신, 신학 너무 잘 했다! 와우, 많이 변했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격려합니다. 처음에 신학 한다고 했을 때 흐르던 그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믿음과 감사와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 계획의 기대와 설렘만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우월감에 성질까지 깡깡한 저에게서 벌써 변한 모습이 보이는가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의 향기가 제 안에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원 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 소비자가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업하기 에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지만,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1:29 말씀을 고백하며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동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김미권

할렐루야!

저의 이름은 김미권 입니다. 퀸즈장로교회 성도이며, 동부개혁신학교 목회학과에 재학 중이기도 합니다. 뒤늦은 신학 공부에 많은 망설임도, 그 자리를 피하고자 애썼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에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네모인가 세모인가 알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모난 부분 없이 동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며 매일 순간마다 감사 드립니다.

매일의 공부가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어려움에도 부딪치지만 해마다 열리는 찬양 축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리를 재확인시켜 줍니다.

잘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내려고 애쓸 때면 “우리는 전문가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소리를 잘 내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라” 고 몇 번 이고 부르짖으시는 윤원상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모습도 나의 소유도 아픔도 기쁨도 나의 눈물도 나의 생명도 주님 앞에 드러릴 때면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져 여기 저기서 훌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 영광 위하여 기쁨으로 제물 되기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라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해요

영아부(예은이 엄마) 고유진



살롬!

엄마가 된지 15개월 차인 영아부 부회장 고유진 입니다. 예은이는 저희 부부의 첫 아이입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진 임신 과정과 출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지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아이를 품은 지 41주 2일 만에 우리 예은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큰 감사요 큰 은혜인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소중한 나 모든 것을 내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내 아이가 소중하듯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는 것 또한 엄마가 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서로 같이 배우며 성장하나 봅니다. 아이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엄마 아빠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작은 사랑에도 미소를 지어주며 감사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정말 아름다워져야만 되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사명감 또한 생깁니다.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예은이가 커가는 키만큼 저희 부부의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시 뉴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양육할 지 고민하던 차에 목사님 주관으로 PTA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고민하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만

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양육에 대한 더 큰 도전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오목조목 엄마 아빠의 예쁜 부위만 닮은 것에 감사했고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기를 바랐지만 PTA 모임 이후 우리 부부에게 더 큰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씨앗인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파하고 축복하는 아이로 성장한다면 이 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있는 플러싱 지역은 여러 민족이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배우는데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하니 우리 예은이 왼쪽 뇌가 오늘따라 더 커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배속에서부터 언어의 은사를 주셨나 봅니다. 우리 퀸즈장로교회 영아부 아이들이 적어도 두 가지 언어 이상을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모든 능력을 주신이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쑥쑥 자라나길 기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그리고 각 반 선생님들의 헌신하는 모습에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교회 일에 동참하여 지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God, Thank you for loving me so much.

유년부 문세인

I am a present from Jesus. He sent God to us so we could be safe.

I am thankful for all that th gave us.

God died on the cross for us and 3 days passed God rose form the death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God I know how strong you are, Please be with my family even though my dad does not come to church.

God, Thank you for loving me so much.

유아세례를 앞둔 나의 아기 주찬에게 띄우는 편지

주찬이 엄마 박세은



이 주 찬, 너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입가에는 미소가, 마음속에는 벅찬 기쁨과 깊은 감사가 가득하구나. 너는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크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그 자체란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너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매일 밤, 불을 끄고 고요한 방에서 잠든 너를 마주하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인자하신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약한 엄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믿음의 청년으로 잘 키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갈수록 약해지는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정결하고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네가 자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나의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는 비록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강력하신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서 인생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게.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옛사람의 습성으로, 또 꺾지 못한 욕심에 휘둘린 엄마의 언행으로 네 마음에 분노와 절망의 쓴 뿌리를 내리게 했을 때에는 엄마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너에게 사과할게.

네가 자라서 이 편지를 스스로 입을 있을 때 쯤, 너는 어느덧 훌쩍 커서 좋아하는 책을 곁에 두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겠지. 주찬아,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지내렴.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너의 가장 가까운 곁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그 분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바란다. 네가 지식을 쌓으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랄 때,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아들로 키우고 싶구나. 또한 이 세상에서 겪게 될 다양한 문제들로 너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우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법칙이 무엇인지 기억하여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란다.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여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 어울릴 때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본받으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함께 서고, 말씀과 기도로 서로 격려해주는 친구를 만나고, 주찬이 너 또한 그러한 친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게. 두 팔로 안으면 품에 포옥- 들어오는 작고 작은 네가 자라서 두 어깨가 아빠만큼 넓어지고 엄마가 고개를 한참 들어야 눈을 마주칠 만큼 장성한 청년이 되어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될 날이 오겠구나. 잠인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고 하셨다. 주찬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자 친구를 만나기를 기도할게. 또한, 너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렴. 그 성전을 결코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너와 여자 친구를 위해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지혜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단다. 일찍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준비된 믿음의 가장으로 자라기를 기도드릴게.

마지막으로, 기쁨 때에나 슬플 때에나 너의 이름이 품은 뜻을 떠올리기를 바라. 기둥 주. 찬송 드릴 찬. 네 영어 이름인 Jaden은 be thankful의 뜻이란다. 너는 그 하시는 모든 역사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리고 감사하는 너의 삶 속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생활이 항상 그 중심이 되기를 기도 드릴게. 책으로 써내도 부족할 엄마의 당부와 격려의 말들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주찬이 부탁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에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빛 되셔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 드리며 이 편지를 맺고자 한다. Oh my baby, 주찬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 주찬이의 엄마가

새벽기도의 힘과 감사절에 주신 주님의 응답

김려화(홍유진 엄마) 교우

저는 미국에 온 지 일 년 미만이고 현재 7개월 아기의 엄마로서 육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40일 지나 친정어머니는 바로 중국으로 떠났고 바로 그날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만난 분을 통해서입니다.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바로 퀸즈장로교회 박영권 장로님이었습니다. 아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미국에서 바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이라 하시며 교회를 추천하시고 그 주말에 저를 픽업하러 오셔서 퀸즈장로교회에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오히려 믿음은 나이 들수록 함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먼 타국에서 혼자 육아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저한테 에너지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저의 남편이 하루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새벽기도에 주로 하였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남편이 눈먼 소경처럼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 주께서 그 잡은 손을 놓지 마시고 꼭 기다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감사절 우리 가족 모두 같이 교회 가서 만찬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도 고집 세던 남편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로 뿌린 씨를 열음장같이 차가운 땅에서 봄을 맞이하면서 흙이 녹아 싹이 틈수 있는 것처럼 저의 남편도 언젠가는 온전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타고 무럭무럭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리든지 저는 이 생명이 끝날 무렵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선은 저희 가정을 택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 저를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신 박영권장로님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이를 위해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시는 영아부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감사가 먼저임을 알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



님 기뻐하시는 일과 말만 하며 천국 갈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일 년 후일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날지도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나만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 이웃과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특히 세상의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 영이 맑은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기도의 힘, 주님의 응답을 여러분도 체험하여 함께 기뻐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절의 감사

김영화(최유아 어머니)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저한테 허락해주신 모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더 더욱 저희 딸(최유아)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늦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라 또한 수줍음을 많이 타는 유아인지라 떼쓰지 않을까? 투정부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젓하게 엄마손 잡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가는 모습에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이 있음을 느껴서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시간, 이런 특별한 찬양을 함께 한 시간, 이 모든 것에는 선생님들의 믿음과 열정과 기도와 정성이 담겨 있어서 더욱더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영아부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며 유아가 하나님 안에서 자람에 감사하고 유아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이명옥전도사님, 전경숙 담임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아가 성장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이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속속히 이루어가는, 주님의 참된 그릇이 되길 소망하며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차량부가 되겠습니다

셔틀부 김만 집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이 감사의 계절에 저희 셔틀부를 소개하는 기회가 주어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셔틀부는 20여명의 봉사자들이 다섯 개조로 나뉘어서 주일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부서의 모든 봉사가 스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저희 부서는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는 부서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가끔은 성도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불이 반짝이는 신호등을 들고 이리로, 저리로 옮겨라 요청합니다. 각 성도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여 꼭 입구 쪽에 세워 먼저 나가려는 의도를 저지하는 저희들의 애로도 많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불편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부 안의 셔틀부서는 학교 파킹장과 교회를 연결하는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하루 신속하고 일정한 순환 운행을 통해 교인들의 학교 운동장 파킹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수집사를 위주로 조직하여 지금은 새로운 많은 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평안한 예배가 되도록 편리를 도모해 드리려 가족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보시면 격려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님들의 따뜻한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셔틀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부관리부 오인택 집사

우리 교회는 예배와 공식적인 행사를 돕기 위하여 2 대의 Yellow Bus와 14대의 church Van 그리고 3대의 Shuttle Bus, 그리고 1대의 의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부의 주된 임무는 교회에서 차량 이용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수와 예방적 보수 및 사후 보수 그리고 쾌적하고 청결한 상태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차량을 부장인 저와 차장인 이정우집사가 관리하다 보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안전히 모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차량관리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불편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시면 언제라도 운전 봉사자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신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교회의 차량을 자신의 차 보다 더 소중히 다뤄주시는 운전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나 부흥회 때 등 특별한 픽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미리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차량의 엔진을 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저 분들의 운전 전의 마음가짐을 읽을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운전하고 나가신 차량에 훼손을 갖고도 아무 보고도 없이 두고 가신 분을 보면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운전자 tip을 드립니다. 장거리 운행하실 때는 가능하면 늘 Spare key를 한 개 더 가져가시는 것이 만의 하나라도 자동차 열쇠를 분실할 때 막막하고 어려운 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恩典的记号

은혜의 증거



徐妍露 Xuyanlu

親愛的弟兄姐妹：大家好！將福

我是中文堂的徐妍露，來我們教會已經有一年的時間了！在我很小的時候我的奶奶就是基督徒，每個週日，我去她家一定要做的事情就是跪在床上禱告，可是在我小學的時候奶奶就去世了，我也一直沒機會去認識這位神。等到我18歲的時候我的外婆大姨也去了教會，他們開始向我們一家傳福音。因為我是獨生女，從小就比較驕縱任性。我媽媽看見身邊基督徒在信主前後，生命都有360度的改變。所以她就想讓我變得溫柔謙卑一些，就一直叫我去教會。可是那時候的我，受身邊環境的影響，老覺得自己信佛，接受不了基督教！在我媽媽勸了我兩年之後，有一天我突然覺得我的生活毫無目的，我身邊的年輕人所追求的東西，都是毫無意義的！我就在想我到底為什麼活着？年紀輕輕就這樣漫無目的地生活嗎？生命的意義是什麼？人生的目的是什麼？我想要我的人生可以做很多有意義的事，很多幫助別人的事情，可我不知道我要做什麼？怎樣去做？於是我想去教會看一看，聽一聽，他們在講什麼？會不會讓我從中找到答案？第一次去我表姐的教會聽道，覺得完全聽不懂，也覺得他們很激動，也不知道他們為什麼這麼激動了！就跟我大姨說，我真的信不進去，第二周我就拒絕不想去，可是我大姨已經跟一個我家附近教會的姐妹約好，為了不失信，我又去了第二次，我一踏進教會，裡面的詩歌就深深地感動了我，讓我內心有種非常感動，非常平安的感覺。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교회 출석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저의 할머니는 교회에 다니셔서 할머니 집에 가면 꼭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게 했으나 초등학교 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18세 되는 해에 저의 엄마와 이모도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온 가족들 모두 저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저는 외동딸로 자라 교만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주위에 교회 다니며 변화되는 자녀들을 보고 저도 온유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저에게 교회를 나가보라고 권했지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문득, 저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제 주변에 있던 젊은 청년들도 모두 무의미한 것들을 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인생은 많은 의미 있는 일들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으나 대체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저의 사촌언니가 출석하는 교회를 찾아 갔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흥분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모한테 다음 주부터는 나가자고 했으나 이미 약속을 했으니 한 번 더 가보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교회에 들어서며 들려오는 찬양소리로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감동과 더불어 평안함도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안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그날 제 마음을 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교회에 자주 나가

后来才知道，这是圣灵在我里面动工，于是我就爱去教会听道。听了一段时间，原本的牧师离开了那个教会。我因为不懂真理，身边也没有基督徒的朋友，都是佛教徒的朋友，也渐渐地不去教会了。这样的日子一过就是八、九年！

之后神就带领着我来到美国。我还遇见了我从小一起长大的同学，我们很快就恋爱结婚了。步入婚姻后，我们就想马上要一个小孩，可是总是没有怀孕。看了医生才知道我丈夫比较难怀孕，他一直吃中药调理身体。吃了断断续续一两年的时间，因为他老是不按时吃药，所以也一直没有效果。我们也放弃中药治疗了！我跟他为了这事不知吵了多少次，每一次看见别人结婚之后，怀孕生小孩就特别地羡慕。在这几年的时间我也一直在找教会，结婚后我就搬到休斯顿，也去了当地几家教会，听了道没有任何感觉。

后来在工作中遇见了一位我们教会的姐妹，于是我和我丈夫就到了我们教会。那天晚上，我又找到重新回到十一年前，初次去教会的感觉，心里莫名感动，一听到就领受了，并且欢喜快乐！而且刚刚去的时候，一直被圣灵感动。心里就常常感觉到，我是一个罪人，这十一年我背叛了神，远离了神，可他却一直在我身边，没有离弃我，一直爱我！一想到这些，我就控制不住流泪。最奇妙的是，原本我以为我的丈夫会感觉无聊，无法融入，没想到他也跟我一样，第一次去教会就听我们陈传道讲道，听的津津有味！那时的我们每次来听道就觉得那篇道，就是在讲给我们听的，陈传道使用从神而来的恩膏，使我们很多信徒的生命得益处！第三次去教会我丈夫就决志信主了！自此之后我们每周有休息都往教会跑，每次结束之后，我和我丈夫都有一种感觉，就是还听不够，还不想回家，恨不得住进教会！我们都非常渴慕神的话语，我丈夫小时候读书就打瞌睡，可是读起圣经来却孜孜不倦，仿佛有一股力量牵引着我们，带领着我们，让我们无比的喜乐！听着神的话语无比的甘甜！真的无法用言语形容那份美好的感觉！

那时候我和我丈夫就开始祷告，也请弟兄姐妹帮我们代祷求神赐我们宝宝，过年的时候我还领到了金句：你父亲的神必帮助你，那全能者必将天上所有的福，地里所藏的福，以及生产乳养的福，都赐给你！（创 49:25）当时我们不懂什么意思，就跑去问传道，传道开心地说：上帝应允你们的祷告了！身边好几位帮我们代祷孩子的弟兄姐妹，也一直跟我们说，一帮我们祷告孩子的事情，心里就很平安，觉得神一定会给我们。但是我们心里还是没底，不知道什么时候才会怀上，我们就等待着。后来我们还是非常着急，决定去做试管婴儿，有姐妹叫我们不要去做，可是我们自己不明白真理，不明白神的应许。当我们想要去做的时候，我的甲亢就复发了，因为这样也阻拦了我们去做试管婴儿的念头。

我们慢慢参加很多侍奉，越来越认识神，越来越明白真理！

게 되었으나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저도 교회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서 보낸 시간이 8,9년이나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 와서 지금의 남편인 어릴 적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를 원하나 임신이 되지 않아 검사와 한약을 먹으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며 아기를 포기하려는 마음 위에 다른 사람이 임신하고 아기를 낳는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직장에서 지금 중국어 예배부에 다니는 자매를 알게 되어 남편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11년전 처음 교회에 나갈 때 받았던 마음에 알 수 없는 감동이 느껴졌고 말씀을 듣자 바로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석 첫날부터 성령님이 만져주심으로 저는 죄인이며 11년 동안 기다리며 늘 곁에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며 생각할 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 신기했던 것은 과연 잘 어울릴까 우려했던 남편이 천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매우 흥미진진하게 듣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 때 천전도사님이 주시는 그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교회 출석한 날에 저의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저와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가고 주일이 끝나도 교회를 떠나기 싫어할 정도였고 책만 펼치면 졸던 우리 남편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정말 집중해서 읽습니다. 안 보이는 확실한 힘이 우리를 강권하여 몰고 가며 끝보다 단 성경의 말씀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기를 위해 주위에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신년하례 예배 때 “창세기 49장 25절의 ... 찢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이다”는 축복 성구를 받고 해석을 부탁하며 보여드리니 천도사님이 아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조바심을 가지고 기다리다 급한 마음에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려다 저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다시 재발하여 계획을 포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과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는 1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감사의 깊이를 더해 가며 모든 상황을 뛰어 넘어 오직 하나님

在这一年时间·我也经历了好几次信仰危机·每当我软弱的时候·我就像一个蹒跚学步的小婴儿·当我快要跌倒的时候·我的父神就一步步地扶着我往前走·让我在这属灵争战的道路上一次次得胜·我内心充满感恩！我还和身边的人分享·其实现在我们没有小孩·恰恰是我恩典的记号·我天上的父神是那么地爱我们！一个父亲会把最好的给他的孩子·所以我现在所拥有的是阿爸父给我最好的！出于他的·不管是顺境逆境·我都欣然接受·感谢他给我的一切！刚去教会开始祷告是求自己所需的·帮弟兄姐妹代祷他们所需的！后来只想求神的国·神的义·自己的事情全然放下·也为弟兄姐妹求他们的灵命提升·也明白我们祷告要不求按自己的意思·只求按神的意思！

我们夫妻热衷于教会一切的事·完全不想孩子的事情·没想到就在这时·奇妙的事就发生了！我居然怀孕了！神垂听了我们的祷告·也成就了祂的应许！他是多么地信实！现在的我也真正明白了·我生存在这个世界上的意义和人生的目的是什么？不自己筹算人生·学会把自己的人生全然交托给主！我的阿爸父拣选了我·把那永生的救恩白白地赐给我·在我这短暂的人生客旅中·我唯一要做的就是成为神忠心的仆人·把福音传到万国万邦·使更多失丧的灵魂得着救赎·使他们回转向神·真正认识这唯一真神！让神借着我这平凡的生命完成祂想要我完成的非凡的工！成为祂手中合祂心意的器皿！

感谢赞美主！荣耀归于我们在天上的父。

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아기문제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바쁘게 지내며 아기에 대한 생각은 아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에 제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뤄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택하여주시고 영생을 값없이 은혜로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행처럼 은 인생에서 제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 더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평범한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평범하지 않은 큰 사역을 완성할 수 있게 저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가페 사랑해요

안아란

The reason why I like agape is because ...

I get to see what's happening in the church and how people go outside to teach other people about God's word and I also read agape so I can see how people feel about God and then I can use that on my own life

And I can learn a lot about how to pray and I learned a lot about how to pray and I see that a lot of people go out to preach God's word on matter what the weather is they are doing that for God



最大的祝福 최대의 축복



李艳华

大家好 我是来自中文堂的 李艳华·来到我们韩中长老教会2年·感谢主我是透过我们现在中文堂的金三喜姐妹 把我带到了我们的教会·开始只是每周参加主日崇拜·直到后来有一次从祷告会回到家 自己在祷告的时候 不知道不觉得的把内心深处·连我自己都没有意识到的 苦毒/纷争 都像神说出来·并求神原谅释放我。祷告完后·第一次感觉到了那种从未有过从多年压制下 被释放的感觉。感谢神 也籍着接下来在中文堂的侍奉和与弟兄姐妹的相交·让我知道了什么是在主里爱人如己。感谢神让我这个属灵婴孩的生命 在韩中长老教会这个大家庭里 不断的成长·籍着中文堂的 门徒培训以及查经班的学习·对神的话语有了进一步的提高·而且生命也开始改变·在这个过程当中 也有过多次的软弱和跌倒。

特别是在去年早祷会期间 妈妈因为突然生病住院·而身为父母的独生女的我不能回去。当时的我真的是眼前一片迷茫·也同时对神失去了信心·就开始自己彷徨失措。那个时候真的好无助·真的不知道如何面对这一切。但是感谢神 在这种情况下依然引领我参加每一天的早祷会·心里虽然对神有些失望和埋怨·但是我知道只能信靠这位神。就在40天结束的时候妈妈的病也被得医治而且出院回家了。那个时候我又再一次经历了神对我的旨意·他通过这件事让我再一次经历了神对我们的应许。

在这感恩的佳节里 特别感谢神 拣选了我做他的儿女·并且受洗开始一个赞新的生命。虽然有过很多的痛苦和磨练但是仍然感谢神·能够让我通过这些更加深刻的经历神·也让我更加明确和认定这份救恩。感谢神 赐给我的每一分 每一天 能够活在主恩里·也让我最终明白 神的旨意不是当前的困难或者赏赐·而是让我们真正的去渴慕追求得到这位施恩背后的主·那才是他给予我们最大的祝福。感谢神 让我明白神的旨意 求主做我人生当中分秒的主宰 直到永远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이연화라고 합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온 지 2년 이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중국어에배부를 섬기고 있는 김삼희 자매를 통하여 저를 우리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주일예배만 드리면서 교회를 다니던 중, 어느 하루는 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가졌는데 저도 모르게 저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마음 속 깊은 곳의 독한 시기와 다툼등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런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저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저를 억누르던 짐을 벗어버린듯 한 홀가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은 중국어에배부를 섬기며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 속에서 주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법도 알게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기같은 믿음을 중국어에배부에서 잘 성장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제자훈련과 매주화요성경공부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삶속에서 변화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제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새벽부흥회 기간에 어머니께서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밖에 없는 외동딸로서 가서 뵙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나도 괴롭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생각과 어떻게 무언가 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서 저는 혼자 방황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아침 새벽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에는 실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그 분만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끝나갈 즈음에 어머니께서도 쾌유하셔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 일로 다시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세례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해 주신 것을 다시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저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본 일초와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참뜻은 제 눈 앞의 고난이나 상급이 아닌 그뒤에 계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힘써 구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영원히 제 삶의 매순간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Христос народився!’ ‘Славімо Його!’

Рождество в Украине

В США есть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й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Керол “Carols of the Bells”. Думаю что вы слышали эту песню потому что в США это стала традиционной песней на Рождество. Но мало кто знает что это песня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песня “Щедрик” и впервые исполненной в декабре 1916 года Национальным хором Украины во время тура по Европе и Америке. Думаю что это уже по настоящему может показать, что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в Украине отмечался широко.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потому что история христианства в Украине, насчитывает официально 1028лет. Поэтому уж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лет, в этой стране складывались свои традиции. Конечно же в основном эти

традиции переплетались с народными и ортодоксаль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В Украине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 красивый зимний праздник. Православной Церковью он отмечается 7 января по новому стилю. Звуки детских голосов, славословят Бога, как ангельский глас, наполняют торжеством Вселенную. Небо и земля славят Рождество Христово. На земле, хотя бы ненадолго, воцаряется мир, а сердца наполняются доброй волей.

К Рождеству по традиции готовили 12 блюд по количеству апостолов. В центре стола ставится кутья. (сладкая каша)

Начиная с вечера, всюду ходили христославы (колядники) с «Вифлеемской звездой». Колядовали обычно дети, взрослые парни и девушки. Дети собирались ватаг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озраста. Малые ребята пели под окнами у соседей. Старшие дети, которым уже исполнилось лет двенадцать, обходили почти целое село. Они подходили к дому, становились под окнами и кричали все вместе, чтобы хозяева благословили их колядование.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отмечается христианами прежде делам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сти. В этот день щедро раздавали

милостыню. В каждом доме колядовщиков ждали угощения или деньги. Не принять колядников считалось большим грехом. Люди состоятельные считали своим долгом передать милостыню нищим, больным, вдовам и сиротам. Очень давней является укра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традиция мириться в этот день, прощать друг другу обиды вольные и невольные, чтобы в полной мере ощутить радость жизни.

К сожалению как и во всем мире,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в странах бывшего СССР, праздником больше новогодним. За всеми елками, подарками и суетой, люди стали забывать о самом главном в этот праздник, о Христе Иисусе.

Евангельские христиане сегодня в основном праздную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в церкв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праздничное служение проходит более 3- 4 часов. В это Богослужение, специально готовятся различные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прославления, сценки, дет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В Большинство случаев,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служения есть общение за столами, где все продолжают славить Господа! Празднуя первое Рождество в США в нашей церкви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собрания. Мы будем служить вместе с корейскими братьями и сестрами. А вечером вместе со всеми членами на дому, мы хотели просто в общении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ак одна семья иметь время радости. Поздравляя возлюбленных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с Рождеством, хотелось бы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такими словами, которые можно услышать по всей Украине в праздник Рождества: “Христос родился! - Славьте Его!” В Рождество это приветствие, которое знают и приветствуют все даже неверующие люди. Поэтому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как сказано в Евангелии от Луки 2:14-15 стихах, Ангелы прославляли Рождение Мессии Христа. Пусть же и мы с вами присоединимся к великой небесной радости, и прославим Иисуса Христа в это Рождество!

‘흐리스도스 나로디브샤’ ‘슬라비모 예고’

송요한 목사

미국에 정말 유명한 케롤 크리스마스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Carols of the Bells” 로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찬양곡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마스 송으로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속 전통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은 모르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제목은 “Shchedryk” 입니다.

1916년에 우크라이나 연합 성가대가 처음으로 이 찬양을 미국에서 연주하여 큰 인기를 얻고 미국 크리스마스 케롤이 되었습니다. 이 한 사실을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독교는 102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적인 영향을 받은 전통이 전 교회에 민족적인 행사들로 이어집니다.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1월 7일에 지내나 우크라이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인들만이 12월 25일에 기념합니다. 이때 모든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제일 높은 트리 위에 별을 올립니다. 그 별은 바로 베들레헴 별을 상징 하는 것으로 많은 경우에는 성물 그리고 사탕과 과자를 올리므로 아이들이 이 명절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은 전 교회 신자들은 이날에 교회를 가며 교회 행사 후에 가족 모두 다시 한번 모임을 갖습니다. 이때는 12개의 요리를 미리 준비합니다. 이 숫자는 12사도들을 기념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으로 준비하는 하나의 요리는 바로 테이블의 중앙에 놓는kutia(달콤한 죽)입니다.

밤에 많은 사람들은 “Kolyadki라고 전통 새벽 송을 부릅니다. 이때는 주로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통 민속 찬양 또는 작은 성극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사람들은 사탕과 과자 또는 돈을 줍니다. 오래 전에는 아이들이 마스크도 쓰고 분장도 재미있게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찬양과 시낭송 또는 연극을 합니다.

오래 전 우크라이나 민속 전통으로 완전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 자신으로 인한 것이나 상대방으로 인한 불만이 있다면 이날에 서로 서로 용서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구소련 공산권 후에 이 크리스마스 명절은 새해 명절



로 바뀌었습니다. 트리도 있고, 선물, 만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명절로 가족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없이 진행되어 아쉽습니다.

복음주의 개신교 성도들은 이날에 교회로 모여 보통 3-4시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찬양, 시, 연극, 교회 학교 어린이 발표가 있고, 설교와 간증을 통해 많은 기쁨을 나눕니다. 예배 후에는 대부분 식사와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명절을 처음 맞이하면서 본교회 러시아어권 성도들이 한국어권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그리스도 탄생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집에 같이 모여 가족 같은 분위기로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는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인사입니다. 만나 인사 할 때 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탄생 했다!” 외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답을 합니다. “Христос народився!” “Славімо Його!” (“흐리스도스 나로디브샤” “슬라비모 예고” 이 인사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 분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눅 2:14,15) 하늘의 천사들도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 했습니다.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탄생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남아 전체를 하나님께...

박수영 선교사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과 함께 2003년도에 등록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을 받은 박수영 선교사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저도 퀸즈장로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제가 청년으로, 선생님이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또 사모로 섬길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저희 친정 같은 모교이기 때문입니다.

20대 청년부 시절 당시 뉴욕 주 예비군으로 있으며 대학 졸업 후 임관하려 했지만 예상치 않았던 이라크 파병기간을 맞게 되어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까지 광야에서 훈련받았듯 하나님께서 저를 이라크라는 광야훈련을 겪게 하시므로 삶과 죽음을 목격하며 스스로 의미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고픈 마음을 갖게 하시며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청년부 안에서 청년부 임원과 교사로 섬기며 훈련받는 중 실제적인 주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학기 중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청년부 인턴 전도사로, 유년부 전도사로 훈련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2013년도 졸업 후의 나아갈 길과 사역지를 놓고 1월 1일부터 작정 기도하는 중 40일이 미처 되지 않은 날에 원로목사님께서 캄보디아 선교를 제안하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이라 생각되어 그저 순종하며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선교지 캄보디아에 도착하는 날 화장실 딸린 쪽방 하나를 찾아 계약을 하고, 다음날부터 지도하나 가지고 툽툽이라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차를 불러 여기저기 다니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선교지는 본교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약 10개월 만에 담장까지 완공하며 유치원 개원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성국 목사님께서 장모님 장례 차 한국 방문을 하시며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로 섬기던 지금의 남편 이일훈목



사를 소개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년에 결혼하게 되었고 본 교회의 양해 아래 선교지를 나와 선교사가 아닌 목사 사모로 20년 만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다 떨어진 옷, 맨발에도 교회 오는 것이 마냥 좋아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말씀 듣던 아이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를 떠나 내 마음에 늘 함께하는 캄보디아에 사역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 이일훈 목사와 함께 빛진 자의 마음으로 6개월 된 아들 이안과 함께 캄보디아로 같이 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지에 가족이 함께 가서 유치원과 주일학교 및 한글학교, 영어학교, 사역자들 리더 훈련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지의 퀸즈장로교회 지교회인 캄보디아 퀸즈장로교회 벨렐교회와 학교를 통해 동남아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올려 드리는 날을 그리며 본교회 성도님들의 무릎 선교사의 기도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